서점에 '대선'의 책들이 뛴다

대선 후보들의 정치관 드러내 … 선거전 전망한 책도 한몫

대선 열기가 서점을 달군다. 최근 서점가에는 이른바 대권주자들의 책들이 속속 선보이는가 하면, 다가올 대선을 분석하고 예측한 책들도 다수 출간돼 눈길을 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책 출간은 일종의 관행이다. 대필과 자비출판, 홍보를 위한 대량 살포의 혐의가 따라붙는 것이어서 정치인들의 책 출간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서점가에 선보인 정치인들의 책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반갑기까지 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 대선을 전망하고 분석한 주목할 만한 논객들의 대선 분석서도 적지 않게 출판돼 관심을 끈다.

선거를 앞두고 서점가에 선보인 정치인들의 책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대선을 전망하고 분석한 논객들의 대선분석서도 적지 않게 출판돼 있다.

최근 쏟아진 대권주자들의 책들. 대선을 분석한 책들도 여럿 나왔다.

정책 대안 제시한 책 늘어

최근 출간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책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정책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특히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들의 정서를 의식한 듯 경제분야의 대안을 제시한 책들이 많다.

동시에 출간된 《대중참여경제론》과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이상 산하)는 김대중(국민회의)총재의 경제정책서. '보기드문 이론가'로 알려진 김총재의 거시경제에 대한 이론적 틀과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대중참여경제론》은 1985년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김총재의 '경제관'을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처방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 부문별 개혁과제와 정책 방향, 통일경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5권으로 된 〈이홍구 문집〉(나남)을 펴낸 바 있는 이홍구(신한국당)고문도 최근 《열린 정치 힘있는 나라》(한컴)를 출간했다. '이홍구의 경제처방'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해결방향에 대한 이고문의 생각과 정책구상을 담은 책이다. 이고문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공동체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기본축으로 하면서 이웃과 남북한,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루 담았다. 개방, 자율, 소득분배, 공존 등이 이고문의 입장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최근에 출간된 책은 아니지만 박찬종(신한국당) 고문이 지난해 펴낸 《박찬종의 신국부론》 역시 경제분야에 대한 박고문의 견해를 담은 책. 이한동(신한국당) 고문의 《이한동의 나라살리기》(신원문화사)는 그동안 대학강단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지역갈등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처방을 담고 있다.

한편, 자서전이나 자전 에세이, 칼럼집 등을 통해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겸하려는 '고전적인' 시도도 여전하다. 이회창(신한국당) 대표의 자전 에세이 《아름다운 원칙》(김영사)은 이대표가 정치권을 잠시 떠났던 지난해 기획, 1년여 동안 집필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책 출간을 무산시킬 생각도 했다는 후문.

이대표는 빠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종로서적이 마련한 '젊은이와의 대화'에도 참여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소신 있게 살아온 분으로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기획의도. 젊은 독자를 대상으로 겨냥한 만큼 내용도 평이하고 이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대쪽'으로 상징되는 강성 이미지를 유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리라는 기대다.

자서전 · 칼럼집 출간도 활기

지난해 《눈물을 닦아주는 남자》(자유문학사)라는 자전 에세이를 펴낸 바 있는 김덕룡(신한국당) 의원도 새로운 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인연, 김현철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박찬종 고문의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종문화사)는 94년에 나왔던 초판의 개

소식

강남에 새로운 서점문화 탄생

6월에 진솔 · 시티문고 개점

강남지역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태어난다. 강남역 근처에 진솔문고와 시티문고가 6월에 잇따라 문을 연다. 강남역 역삼동쪽에 신축한 진솔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진솔문고(대표 홍기성)는 총 1천9백평 규모의 강남 최대 복합문화서점으로 오는 6월 21일 문을 연다. 또 오는 6월11일 개점하는 5백평 규모의 시티문고(대표 김세영)는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 등 개관기념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전영표 교수 회갑 기념 출판

신구전문대 출판학과 전영표 교수가 지난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갑을 기념해 펴낸 《출판문화와 잡지 저널리즘》 출판기념회를 관련 인사들과 함께 가졌다. 17년

전영표 교수.

간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연구해온 여러 글들을 한자리에 모아 '출판, 잡지, 인쇄, 저작권의 만남'이란 부제로 펴낸 이 책은 책과 인쇄를 사적으로 조감하면서 동과 서의 인쇄를 비교, 한국 인쇄의 문화사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정증보판이다. 추어탕집 이야기나 졸음에 시달리는 이야기 등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정치·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비평 등 딱히 하나로 꼬집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칼럼들을 모았다.

이밖에 김종필(자민련) 총재가 지난 70년 일요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묶어 펴냈던 《JP 칼럼》의 개정증보판도 출간됐다(Project 409). 서울방송 사회부기자인 김선길씨가 펴낸 《나의 길 나의 도전》(행림출판)은 이한동·최형우·이기택·김덕룡·박찬종·이회창 등 차기 대권주자들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한 책으로 대권주자들의 면면을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선주자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책 출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한 대선주자의 측근은 "TV토론이나 기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은 대중적 파급효과는 큰 반면 일회적이고 시간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책은 영구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상세하게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고 이유를 밝힌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 이들 출판물이 대부분 후보자의 자비로 출판된 것인 반면 최근에는 출판사의 기획에 의한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한 출판인은 "대선주자의 책을 출판하면서 '선거 프리미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상업성만으로 출판의 도의를 무너뜨릴 만큼 출판계의 수준이나 자존심이 형편없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치밀한 기획도 없이 급조된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지 뻔하지 않느냐는 이 출판인의 지적은,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과 후보측의 홍보효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대선 전망

대선주자들의 책을 통한 경선이 뜨거운가 하면, 다가올 대선을 전망한 다양한 논객들의 책은 분석을 위한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냉엄한가를 다툰다. 운동권 출신으로 한때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유시민씨의 《97대선 게임의 법칙》(돌베개)은 "제3후보 아니면 정권교체 못한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끄는 책이다. 87년과 92년 대선 결과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유시민씨는 야권의 집권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제3의 후보로 조순 현 서울시장을 든다.

《미국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있다》(지식공작소)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책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20년간 미 정부기관에서 정치·안보 분야의 일을 담당했던 이용수(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연구소장)씨가 저자다. 미국 정부가 아시안 스터디라는 한 연구소에 의뢰해 96년 5월 9일자로 작성한 〈'96-'97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 구도를 분석한다. 내각제 개헌은 천만의 말씀이고 DJ와 JP 연합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앞의 유시민씨와 동일하다.

차기 대권은 3김의 구태를 벗어난 중도파 보수주의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책에서는 최형우씨를 낙점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의 집필 당시 저자는 누구나 그랬듯 최형우씨가 쓰러질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을 것이다.

95년 민자당이 당 외곽의 대형 씽크탱크로 출범시킨 '여의도 연구소'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민주계 이론가요 강성개혁파로 알려진 이영희(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씨가 펴낸 《이 나라엔 정치가 없다》(현대정보문화사)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원칙론적인 비판과 대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책이다. 개헌 반대와 3김 청산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은 유권자들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후임자를 결정한 이후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저자가 내세우는 차기 대통령의 자질은 도덕성·개혁성·민주성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낙후된 정치현실로 환원된다. 우리 정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사람은 서점으로 나가보면 좋을 듯하다. 거기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 박남정 기자

출판 포커스

비전 없는 출판환경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읽기'가 정보사회의 생존능력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진부한 정치와 전면적 부패 속에 과거의 논픽션적 화제나 반추해 보고 있다.

컴퓨터 혁명 속에 인쇄된 책의 종언이 제법 빠르게 진전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출판뉴스》가 정리한 96년 세계 주요국 출판현황을 보면 한국만 빼고는 모두 출판량이 늘고 있다.

미국은 94년 연간 4만종대에서 5만종대로 올라섰다. 거의 모든 분야가 고르게 신장되었는데, 96년에는 사회학·경제학·과학에서 5백종 이상씩 신간종수가 늘었다. 95년 미국의 서적 총매출고는 전년대비 5.3% 늘어 198억5천만 달러였다. 영국은 96년 출판종수가 6.8% 증가해 10만1천5백종이 되었다. 신간 7만8천종, 재판 2만3천종으로 각각 8.4% 1.4% 신장, 재판까지도 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출판·인쇄에 대한 국가 조성연방계획'이 정부에서 수립되어 출판사들이 계속 늘고 있다. 95년에만 신규출판사가 8천5백개이다. 자유로운 사립출판의 역사가 이제 5년여에 불과하므로 우선은 출판행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변화이다. 그러나 《러시아 대백과사전》에 대한 특별예산조치를 비롯, 2001년까지 러시아출판은 정부의 출판산업진흥책과 함께 급격히 신장될 준비를 갖추었다.

독일도 96년 5% 증가했다. 총발행종수는 7만4천종, 초판이 5만4천종이다. 독일 출판의 최대분야는 여전히 문학. 1만종을 넘고 있다. 95년 총매상고는 165억 마르크. 전년대비 3.5% 성장이다. 프랑스는 과거 5년간 2만4천종 내외로 고정돼 있었는데 96년 일시에 16.2%나 증가해 2만7천종을 넘어섰다. 매출고도 2.5% 성장. 책 종류별로는 포켓판 4.7%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종수에서 2.7% 감소했다. 분야별로 문학·아동·학습참고서가 줄고 사회과학·기술과학이 늘었다고 소개됐다. 늘고 주는 것이 상황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줄어도 그 내용의 질적 수준에서 출판문화 역량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로 해보는 위안이다.

우리는 사실상 내용면에서도 현저한 낙하를 하고 있다. 캐릭터상품이나 팬시형 잡서나 주간지적 화제의 확대인쇄물 같은 책들은 지난 몇년간 유행처럼 확대됐다. 주요국에서 특히 맹렬하게 늘고 있는 미래예측과 전망서들은 번역서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서점에 갈 때마다 내가 제일 답답해 하는 것은 80년초에 나온 앨빈 토플러의 저서가 아직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미래쇼크》는 아마도 지금엔 제목 때문에 팔리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의 90년작 《권력의 이동》이나 그 이전의 《제3물결》도 이제는 내용상 의미를 잃고 있는 과거의 책이다. 대단해 보이던 '리엔지니어링'류의 책들은 또 미국에서는 이미 리엔지니어링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승부를 끝낸 결산노트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 정부시책으로 벤처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단 하나 한 것이 없다. 벤처라는 용어조차 아직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문체부가 혼자서 '문화비전 2000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쓰인 '비전'이라는 말이 세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자산은 비전이다'라고 쓰인다. 벤처만큼이나 비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책읽기를 배가(倍加)하지 않으면 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 시점의 세계적 '상식'은 우리에게 그저 외국어일 뿐이다.

'벤처'나 '비전'이 '상식'인 변화 속에, 그리고 '읽기'가 21세기를 사는 생존의 기초적 능력이라는 것이 합의되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진부한 정치와 전면적 부패 속에 과거의 논픽션적 화제나 반추해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만의 특수한 출판환경이다. ❖